



경기고75' 백령도 1박2일 부부문화탐방

1박2일 07:50 하모니플라워 출발

※ 신분증 지참요

▶ 1일차

- 07:20 인천 연안부두 1층 터미널 좌측 만남의 장소 (직원 010-7321-1911)
- 07:50 연안부두 출발 (약 3시간 50분 소요)
- 11:50 백령도 용기포항 도착 (버스, 안내자 대기)
- 12:20 중식
- 14:00 심청각(효녀심청의 제당, 장산곶 조망) - 중화동 출발
 - 해상관광 (약 1시간 20분) 장군바위, 선대암, 만물상, 코끼리바위
 - 두문진관광지 도보관광 - 통일기념비
- 18:00 석식(자유식)

▶ 2일차

- 08:00 조식
- 09:00 버스 승차 백령도 육상관광 시작
 - 용기원산자연동굴 (등대해안) / 고봉포 사자바위 - 사곶천연비행장 (사곶해수욕장 천연기념물 391호) - 담수호관광지 (미래백령주민식수원해상공원 예정지) / 콩돌해안 (천연기념물 392호) - 중화동교회 (백년역사의 교회 역사적 가치가 높음) - 연화리해안가 (우리나라 아름다운 100개 해안가 지정) - 특산단지 견학
- 11:40 중식
- 12:50 백령도 출발
- 16:50 인천연안부두 도착 후 해산

◎ 포함 내역

- ☞ 왕복선박료, 1박3식, 유람선비, 교통비, 입장료
- ☞ 불포함 사항 : 석식(자유식), 여행자보험료

■ 백령도 소개

백령도는 동경 124도 53분, 북위 37도 52분 지점에 위치한 대한민국 서해 최북단의 섬

이섬은 면적 45.84제곱킬로, 해안선의 길이 56.8킬로, 최고높이 해발 185미터로 우리나라에서 8번째로 큰 섬이다. 인천에서 서북쪽으로 222.2킬로 떨어져있는 이 섬은 북한의 황해도 장연과는 직선거리 10킬로, 장산곶과는 15킬로 떨어져 있다. 백령도 서북쪽의 두무진과 북한의 장산곶 중간에는 만고 효녀



심청이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위해 뱃사람에게 공양미 300석에 몸을 팔아 바다에 빠졌다는 인당수가 사나운 물결을 꿈틀거리고 있다.

백령도의 남쪽에는 인당수에 빠졌던 심청이 용궁에 갔다가 타고 온 연꽃이 조류에 밀려왔었다는 연화리와 그 연꽃에 걸려 있었다는 연봉바위가 있다.

이섬은 동쪽과 북쪽으로는 북한의 황해도 용진반도와 장연군을, 남쪽으로는 대청도를 마주 보고 있다. 이섬의 북쪽에는 이섬 최고 지점을 이루는 산이 있고, 동쪽 해안선은 작은 만을 이루고 있어 예로부터 항해 중에 어려움이 생기면 피난하는 곳으로 이용되었다. 그래서 이섬은 신라 시대부터 중국과 배로 왕래할 때의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하였다.

백령도는 제4기 빙하기 때에는 황해도 용진반도와 연결되었던 평원상에 돌출한 잔구상의 지형으로 해수면의 상승으로 저지가 침수되어 잔구의 윗부분이 남아 육지와 분리되어 섬으로 된 지형이다. 섬전체가 ㄷ자형으로 섬의 동쪽이 만입지형의 갯벌중간대를 이루어 바다와 접하고 있다.

이 만입지형의 넓은 뺨이 최근에 간척되어 농지와 저수지로 변하고 있다.

해안선은 동부의 만입지형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단조로운 해안선을 이루고 암석해안과 사반해안이 교체되어 발달하였다. 섬의 동북쪽에 위치한 용기포와 용기원산은 원래 섬이었으나 연안사 주의 발달로 백령도와 연결된 전형적인 육계도이다. 용기포에서 남서방향으로 3km 정도 발달된 사곶해수욕장은 세립질의 규사로 이루어져 물이 잘빠지고 단단하여 천연 비행장으로 이용되어 왔으나, 최근 진촌리 앞 갯벌을 간척하기 위하여 방조제를 쌓은 후 실트(모래와 점토의 중간입자)질의 입자가 유입되기 시작하여 특성이 변하고 있다. 진촌리앞 만입지형내에 위치한 갯벌은 백령도에서 보기도문 뺨지대이나 1991년부터 농지조성과 수자원 확보를 위하여 간척지개발사업이 시작되어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다.

■ 주요관광지

서해의 해금강 두무진 (명승제8호)



제2의 해금강 또는 금강산의 총석정을 옮겨 놓았다고 할 만큼 기암절벽이 많은 두무진은 백령면 연화 3리 해안지대이다. 신선대, 형제 바위, 장군바위, 코끼리바위 등이 푸른 바닷물과 어울려 아름다운 비경을 이룬다. 장군들이 모여 회의하는 모습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름 지어진 두무진, 통통배를 타고 이 일대를 해상관광하는 관광객들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이다.

두무진을 등진 바다 건너편에는 북녘땅 장산곶과 몽금포해안이 가깝게 보여 실향민들이 두고 온 고향을 그리며 애환을 달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사곶해수욕장 (천연기념물 제391호)



주변에 크고 작은 기암절벽으로 둘러싸여 절경을 이루고, 해변 후면에는 0.2km² 가량의 검푸른 해송지대와 해당화 나무가 어우러져 시원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너비 100m의 백사장은 경사가 거의 없는 매우 고운 모래로 이루어져 있고 수심 또한 매우 낮다.

콩돌해안 (천연기념물 제392호)



백령도의 지형과 지질의 특색을 나타내고 있는 곳 중의 하나로 해변에 둥근 자갈들로 구성된 퇴적물이 단구상 미지형으로 발달한 해안이다. 콩돌해안은 백령도 남포리 오군포 남쪽해안을 따라 약 1km 정도 형성되어 있고 내륙쪽으로는 군부대의 해안초소와 경계철조망이 설치되어 있다. 둥근 자갈들은 백령도의 모암인 규암이 해안의 파식작용에 의하여 마모를 거듭해 형성된

잔자갈들로 콩과 같이 작은 모양을 지니고 있어 콩돌이라 하고, 색상이 백색, 갈색, 회색, 적갈색, 청회색 등으로形形色색을 이루고 있어 해안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있다.

심청각



심청이 아버지 심봉사 눈을 뜨게 하기위해 공양미 삼백석에 몸을 던진 인당수와 심청이 환생했다는 연봉 바위 등 백령도가 심청전의 무대였던 사실을 기리기 위해 인당수와, 심청이 환생했다는 연봉바위가 동시에 내려다보이는 곳에 심청각을 건립하여 전통문화를 발굴, 계승함과 아울러 "효"사상을 함양하고, 망향의 아픔을 가진 실향민에게 고향을 그리는 대책사업으로 심청이 환생장면 등을 전시했을 뿐만 아니라 심청전에 관련된 판소리, 영화, 고서 등을 전시하고 있다.

감람암포획 현무암 분포지 (천연기념물 제393호)



백령도 지역의 현무암류는 진촌마을을 중심으로 분포하며 면적은 약 4km²이며 용암류의 두께는 최대 10m정도의 단일층으로 산출되며 해안가에서는 5~10m 두께의 단일 용암단위가 고 토양층을 경계로 상부에 분포한다. 현무암이 분포하는 해안의 길이는 약 1km²가 되며 앞 바다에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바다가 보인다.

물개바위



두무진 주변 선대암과 코끼리 바위를 지나면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받고 있는 물범이 수면에 잠길듯 말 듯한 바위에 옹기종기 집단서식하고 있다.

중화동교회



1896년 기독교가 백령도 중화동에 장로교회를 설립한 후 지금은 14개 교회로 확산되어 많은 신도가 있으며, 특히 중화동 교회는 한국 솔내교회와 세문안 교회 다음으로 세워진 유서 깊은 교회로 유명하다

코끼리바위



두무진 절경중에 하나로 꼬끼리가 물을 마시고 있는 모습과 흡사하다 두무진 일대는 선대암, 황제바위 등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져 명승 제8호로 지정됨

사자바위



관창동 고봉포 앞바다에 있는 사자바위 만조시 각에 보는 것이 가장 좋으며 마치 사자 얼굴을 바로 옆모습으로 보는 듯한 형상을 닮았다고 하여 사자바위라 불린다.

천안함위령탑



백령도 연화1리에 위치한 천안함 위령탑은 2010년 북한에 의한 천안함 피격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천안함 승조원 46용사의 희생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조성된 공간이다

기독교역사관



백령도 중화동교회 옆에 있다. 용진군이 총신대학교 양지캠퍼스 소래교회, 화성군 제암리교회 등의 협조를 얻어 건립을 추진하였으며, 2001년 11월 20일 개관하였다. 19세기 초부터 백령도와 그 주변 지역에서 전개된 그리스도교 선교 역사 기록을 모아 전시하고 있다.

용트림바위



용트림 바위는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닮아 붙여진 이름이며, 바위 스스로 하늘을 향해 나선처럼 꼬며 오르는 형상이 매우 인상적이고, 바위에서는 가마우지와 갈매기가 서식을 한다.

국토끝전망대



국토 끝 섬 전망대는 연면적 390㎡에 지상 2층 규모로 지난 2011년부터 16억원을 들여 지었으며 1층 일부는 해병대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다. 이 전망대에 올라가면 백령도와 직선거리로 10여km 떨어진 북한 황해도 장연군이 한눈에 들어온다.

연봉바위



백령도의 남쪽 해안에 위치한 남포 2리에서 남쪽 대청도 쪽으로 3Km쯤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바위섬이다 연봉은 지름이 약 80m쯤 되는 길쭉한 원 모양의 바위인데, 봉우리 두 개가 솟아 있고 이 바위의 모습을 헬리콥터를 타고 위에서 보면, 연꽃 모양으로 보인다고 한다 전설에 의하면, 용궁에 갔던 심청이 연꽃을 타고 인

당수에 떠올랐다가 조수에 밀려 떠내려와 연봉바위에 걸려 있다가 선인들에게 발견되었다고 한다.

통일기념비



조국의 통일을 기원하기 위해 세워진 것으로 두무진 포구 왼쪽 능선 위에 서 있다. 멀리 북녘 땅을 바라볼 수 있어 실향민들의 발길을 머물게 한다.

■ 먹거리



까나리액젓

백령도에는 까나리가 유명하다. 까나리는 멸치와 비슷한데 낚시미끼로 쓰거나 말려 졸여 먹기도 하지만 주로 액젓을 담근다. 맛이 담백하게 숙성됨에 따라 비린내가 없어서 독특한 맛을 느낄 수 있다.



해삼

관내 청정 해역에서 생산되며 강장에 좋을 뿐 아니라 기호도가 높은 연체동물로 이노작용을 촉진시키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백령약썩

해풍을 맞고 자라 향과 약효가 뛰어나며, 특히 신경통, 근육통환자들에게 약품을 이용한 치료는 많은 효과가 있다.



꽃게

백령도는 그야말로 꽃게로 유명하다. 매년 2월 초순부터 6월 하순, 9월 중순부터 11월 하순까지 꽃게잡이를 하며 최고의 상품으로 친다.



흑염소

옹진군 자연 초지에서 방목으로 자란 흑염소는 상양과 같은 약효가 있으며, 대표적인 옹진 특산물 중 하나이다.



자연산굴

바다의 우유라고 불리는 자연산 굴.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채취하며 고단백식품으로 환자 및 노약자의 건강과 피로회복에 그만이다.

■ 지도

서해 최북단의 섬 천혜의 자연을 품은 백령도

